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한국교회의 선교

The Kidnapping Incident in Afghanistan and the
Korean Church's Mission

이복수

| 국제문화신학교과 교수, 신학박사 |

I 들어가면서	16
II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위촉시키는 입장들	17
III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에 위촉되지 말아야 할 이유	19
1. 선교사역에 장애와 위험이 상존하는 이유	19
1) 주님이 위험을 선교사역의 본질로서 말씀하심	19
2) 영적전투로서 선교사역	21
3) 이방종교와 만나는 선교사역	23
4)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의 사역	25
2. 선교사들이 옹린 순교의 피로 얼룩진 선교역사	28
IV 한국교회가 해외의 위험지역에서의 선교에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	33
1. 시위적인 활동의 자제	34
2. 현장의 문화와 정서 이해	38
3. 협력체계의 사역	40
4.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사들의 겸손한 섬김의 사역	42
V 맺으면서	44

이복수 교수

고신대 및 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석사(M.Div), 스코틀랜드 Free Church of Scotland College(Post.Dip.Th) 및 Aberdeen University(Th.M)에서 실천신학 전공, 남아공화국 Potchefstroom University에서 선교학으로 신학박사(Th.D) 학위 취득. 남아공화국 Durban 한인교회 설립(설교목사로 사역) 및 모든민족선교회(Mission For All Nations) 설립(대표로 사역), 현재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선교목회대학원장, 대학평의회회장, 고신세계선교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 임직. 저서로 「사회복음주의」 「선교와 언어(공저)」 「선교의 목적: 하나님 나라」 「크리스천의 바른 삶」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공저)」 「남아 및 중미 선교론(공저)」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 과 다수의 논문이 있음.

요약문 :

2007년 7월 19일 샘물교회의 봉사단 23명이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하여 피랍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교회 내에 해외선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가 선교현장에서 직면한 위험과 장애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선교의 본질과 선교역사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선교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위험과 장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통하여 확인한다: (1) 주님이 위험을 선교사역의 본질로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2) 선교란 영적전쟁에 속한다는 사실, (3) 선교란 타종교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4) 선교란 다른 문화와 환경적 요인에서의 사역이라는 사실. 선교역사의 측면으로서 시대마다 선교사들의 희생에 대한 기록은 장애와 위험이 기독교 선교에 본질적인 요소임을 확인시킨다. 기독교 선교에 이러한 본질적인 장애와 어려움이 있으나 불필요하게 장애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과 장애 지역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면들을 필요로 한다: (1) 시위적인 선교활동의 자제, (2) 현장의 문화와 정서 이해, (3) 협력체계의 사역, (4)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사들의 겸손한 섬김의 사역.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는 위험한 지역과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적인 토대 위에서 사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피랍사건, 시위적인 선교, 선교의 위험성, 영적전투, 백 투 예루살렘

The Kidnapping Incident in Afghanistan and the Korean Church's Mission

19 July, 2007, 23 members of the serving group sent by Sammull Presbyterian Church were kidnapped in Afghanistan by the Taliban. Due to this incident there has been a negative response in Korean churches in relation to Korean church's foreign missions and regrettably they have withered.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to deal with the Korean church's withdrawal from missionary service owing to obstacles and difficulties which can be met in mission fields,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intrinsic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Christian foreign missions and that there have been so many writings of missionary victims in Christian missionary history. The intrinsic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Christian foreign missions are as follows: (1) the contents mentioned in Jesus' words, (2) missions as activities of power encounter, (3) missions as activities in meeting pagan religions, (4) missions as activities in other cultures and environment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world wide mission, the fact that so many missionaries have died in the ages in the mission field proves the intrinsic obstacles and difficulties of Christian foreign missions. Even though there are such intrinsic element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to seek them out. Therefore some strategic elements are needed during missionary activities in a special area of obstacles or difficulties: (1) restraining demonstrative missionary activity, (2)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emotion of the area, (3)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missions, (4) humble and serving missionaries who are in full spiritual growth. Finally it is said that Korean church's foreign mission must be continued even through the intrinsic obstacles and difficulties that can be found in dangerous areas, but by strategic elements.

Keywords

kidnapping incident, demonstrative missionary activity, dangers of mission, power encounter, back to Jerusalem

I. 들어가면서

2007년 7월 19일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 의하여 피랍된 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국민들 중에는 교회가 위험지역에 선교하러 가서 이 같은 일을 만났다고 하면서 상당한 비난을 인터넷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기독신자들 중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봉사활동을 주선한 한민족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수일 내에 “직원마다 5~6통의 비방성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해 받는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말한바 있다.¹⁾ 이러한 경향 때문에 피랍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경남 CBS의 한 아나운서가 기독신자들마저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면서 필자에게 일곱 가지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요청한바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의 사건을 부정적으로나 혹은 비방하는 분위기로 이끌면 자연히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사역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교회 해외선교 위축 우려”라는 주제로 실린 기독교 계통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각 교회의 해외 단기선교단들이 취소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현지에 남아 있었던 단기선교팀들도 조기로 귀국하였으며, 현지의 선교사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안전문제가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 지망자들이 특정 국가들

을 기피하는 양상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²⁾ 따라서 필자는 이번에 발생한 피랍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에 대하여 위축당하지 말아야 할 것과 위험한 지역에서의 선교사역에 필요한 전략적인 면을 고찰한다.

II.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위축시키는 입장들

피랍사건이 발생한 8일 후에, 한독선교신학연구소의 김만중 목사는 뉴스앤조이에 “한국교회, 오만을 버리고 회개해야”라는 주제의 글을 올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선교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부각시켰다.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에 있다. 인질로 잡힌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못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본질은 기독교에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일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들어 냈는지 실감했다. 아프간의 일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비판은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중립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게조차 너무 힘들고 아픈 것이었다. 정말 이정도 인 줄은 몰랐다.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뛰어 들었던 선교적 측면에서 실패했다. 세계 최대의 선교사 파송국인 한국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선교 터전에서 실패했다. 수많은 반대세력을 만들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기독

1) “비방성 댓글, 가족들 두 번 운다”, kscoramdeo.com, 2007년 7월26일.

2) “한국교회 해외선교 위축 우려”, 한국기독신문, 2007년 8월4일, 제1면.

교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이웃을 잃어버렸다. 이웃이 없어도 존립에 문제가 없는 권력이 되어버렸다. 기독교의 사학법 투쟁은 권력이 되어 버린 교회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³⁾

위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적들을 만들고 이웃을 잃어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선교에 실패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강길 역시 아프카니스탄의 피랍사건은 한국교회가 배타적인 교리를 폐지하고 본질적인 선교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면서, “내가 볼 때 선교랍시고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야말로 전혀 예수의 삶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은 선교의 주체라기보다 선교의 대상이 아닐까 싶다”고 까지 말했다.⁴⁾ 이러한 입장은 해외선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정주진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봉사활동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⁵⁾ 천안살림교회의 최형묵 목사는 선교의 개념이 자선, 봉사, 옹호, 정의로 발전하여 온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에 의한 선교란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포기하는 삶을 보이는 방향으

로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⁶⁾

이상의 입장들은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이나 유일성을 가능한 표현하지 않는 입장의 선교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선교사역자들의 삶과 선교사역은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강조하는 일면의 의미가 있는 것을 부인할 없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비기독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복음전파의 핵심 메시지로 전파해야 하는 기독교의 해외 선교사역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I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에 위축되지 말아야 할 이유

아프카니스탄의 피랍사건은 한국교회가 해외선교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인하여 한국교회의 해외선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 선교에는 본질적으로 장애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사실과 기독교의 선교역사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장애나 위험이 있어도 중단 없이 사역하는 기록들로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선교사역에 장애와 위험이 상존하는 이유

1) 주님이 위험을 선교사역의 본질로 말씀하심

6) “아프카니스탄 인질사태, 개신교 선교방식 바꿔놓을까”, 조선일보 2007년 8월 2일, A25면.

3) 김만중, “한국교회, 오만 버리고 회개해야”, newsnjoy.co.kr, 2007년 7월 27일.

4) 정강길, “한국교회, 누가 누구에게 선교하는가”, newsnjoy.co.kr, 2007년 7월 30일.

5) 정주진,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들도 원할까?”, newsnjoy.co.kr, 2007년 7월 24일.

기독교 선교는 본질적으로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하는 사역이다. 그 이유는 복음은 항상 이미 전해진 지역에서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파급되며,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모르는 지역과 사람들이 쉽게 복음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복음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낼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⁷⁾ 고 하심으로 선교사역에 수반될 위협과 어려움을 말씀하셨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들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⁸⁾

케인(J. Herbert Kane)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기독교 선교에는 인간에 의한 적대적인 활동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에 투쟁의 요소

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특별히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으며(마 10:34), 가족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마 10:35-36)을 인용하였다. 그는 또한 바울이 그의 개종자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환난을 통한다고 말한 것(행 14:22), 복음을 위하여 장차 받을 환란을 언급한 것(살전 3:1-4),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는다는 것(딤후 3:12)을 가르쳤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가 불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벧전 4:14)고 가르친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선교에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설명했다.⁹⁾

이처럼 주님이 선교사역에 따르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 삶을 살았던 바울과 사도들이 자신들의 선교적인 생애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기록한 것은 선교사역 자체가 본질적 장애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적전투로서의 선교사역

선교사역 자체가 영적전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어려움과 장애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솔타우(T. Stanley Soltau)에 의하면 한 사람의 선교사는 항상 영적 전투의 정면과 중심부에 놓여 있다.¹⁰⁾ 선교사역을 영적전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도록 노예로 만

7) 마태복음 10:16.

8) 고린도후서 11:23-27.

9)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287-288.

10) T. Stanley Soltau, *Facing the Fie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121.

들며, 복음의 사자들을 공격하고 대항하고 있다면¹¹⁾ 영적전투의 개념은 쉽게 이해된다. 케인에 의하면 기독교 선교역사의 첫 세기이래 선교사역에 대한 사단의 방해는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선교사들은 대다수의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¹²⁾ 그는 계속하여 사단이 선교의 초기 단계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1952년 복음주의 선교연맹(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이 이리안 자야(Irian jaya)에 최초로 선교사 두 명을 파견하였는데, 에릭슨(Erickson)과 트리트(Trit)였다. 그들은 미지의 정글을 향해 모험적인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두 선교사는 원주민 짐꾼들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살해 되었다. 누가 이것을 가리켜 사단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¹³⁾

복음주의 입장에서 주도하는 세계복음화 운동이 1974년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모였을 때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 1974)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제12항 전반부 의하면 기독교 선교가 직면하게 되는 영적전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악의 권세들과 능력들과의 부단한 영적전

11) Jo Anne Dennett, *Thriving in Another Culture*, 정운하 역, 「타문화에 뿌리 내리기」, (고양사: 올리브나무 프로젝트, 2004), 42.

12)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267.

13) Ibid, 275.

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것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와 더불어 기도의 영적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으로 안다.¹⁴⁾

이러한 영적전투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은 여러 가지의 방해와 장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3) 이방종교와 만나는 선교사역

선교사역은 자연스럽게 이방종교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비기독교종교들과의 직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인에 의하면 선교사가 사역의 현장에서의 생활에 적응해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종교적인 환경에서의 적응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선교사가 먼저 부딪혀야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비기독교종교들로서 그들 종교의 크기와 세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강하다는 사실 앞에 놀라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힌두교, 불교, 혹은 이슬람교에 둘러 싸여 있는 조그만 섬과 흡사함”을 느끼게 되며, “난생 처음으로 그는 약하고, 가난하며, 멸시 받고, 때때로 핍박받는 종교적 소수 집단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한다.¹⁵⁾

14) Arthur P. Johnston, “Appendix II The Lausanne Covenant”, *The Battle for Evangelism*,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78), 376.

15) J.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서울: 도서출판두란노, 1993), 145.

기독교선교 역사에서 타종교와 만남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복음주의 입장에서 타종교와의 만남에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선포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바이엘하우스(Peter Beyerhaus)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산해드린 앞에서 외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는 말씀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의 주가 주신 명령으로서 사도시대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설명했다.¹⁶⁾

오늘날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극단적인 경향과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예수의 유일성과 독특성은 전쟁과 분쟁의 요인으로 지적되며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의 고백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이 기독교 선교를 통해 지켜지고 선포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인 입장이 유지되어야 할 것을 천명한 세계복음화 운동의 마닐라 선언문(The Manila Manifesto 1989)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지켜져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는 옛 종교의 재흥도 있고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원후 1세기에도 ‘많은 신과 많은 주’(고전 8:5)가 있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6) Peter Beyerhaus, *Mission and Apologetics*, 이선민 역, 「현대선교와 변증」, (서울: CLC, 2004), 176.

17) C. Rene Padilla, *Mission Integral*, 홍인식 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263.

유일성, 필수성 및 중심성을 담대히 주장했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¹⁷⁾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은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선포의 요소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화란의 선교학자 스춘호벤(E. Janen Schoonhoven)은 선교신학의 임무 4가지를 밝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지키며 파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¹⁸⁾ 이러한 입장들에 의하면 비기독교 지역에서의 선교사역에는 위협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물론 선교사역의 자세가 교만과 우월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는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선포에는 불가피하게 장애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4)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의 사역

해외 선교현장은 기후나 문화, 그리고 환경이 본국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히 선교사역에 위협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은 선교사를 긴장 가운데 살며, 사역하게 한다. 의사로서 7년 동안 교회선교회(The Church Missionary Society)의 거의 모든 선교사를 만나볼 수 있었던 란케스터(Herbert Lankester)에 의하면 선교사의 사역이 긴장의 사역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긴장 가운데서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¹⁹⁾ 선교현장의 상황은 분명히 정서적인

18) E. Jansen Schoonhoven, *Variaties op het Thema Zending*, (Kampen: Kok, 1974), 14.

19) Herbert Lankester, "Life and work in the tropics and how to prepare for it", *The Call, Qualifications and Preparation of Candidates for Foreign Missionary Service*,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906), 159.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많다.

선교지의 생활은 비교적 본국에서 보다 어렵다. 신경 쇠약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인 수많은 초조감들은 한 사람의 정서적인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내성적이며, 열등감이 있거나 혹은 각종 공포증과 좌절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선교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는데 대체로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정신 건강의 빈약함과 정서적인 미성숙이 모든 선교사 낙오자들의 거의 11%를 차지한다.²⁰⁾

선교지에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견디어 내기 어려운 현장임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후와 환경의 차이에 의한 위협과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선교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과 열대의 기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부적합하다고 제한하기도 한다.²¹⁾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는 문제이다. “새 선교사가 타문화권으로 들어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압박감 외에도 특별한 압박감을 경험하게 된다.”²²⁾ 케인은 이러한 문화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문화충격으로 표현

20) J.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45-46.

21) Henry H. Jessup, "Who ought not to go as foreign missionaries", *The Call, Qualifications and Preparation of Candidates for Foreign Missionary Service*,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906), 14, 18.

22) Jo Anne Dennett, op.cit., 40.

23) J.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115.

하면서 “배멀미와 문화적 충격은 둘 다 실제하며,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알잡아 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²³⁾

동양과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교사역자들에 발생하기 쉬운 풍토병 역시 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특별히 그러한 질병들에 속하는 것은 말라리아, 이질, 흑수열(black water fever), 그리고 풍토적이며 전염성의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²⁴⁾ 선교사라고 해도 타문화의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에 “선교사도 역시 사람이다”²⁵⁾ 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이다.

그 외에도 기독교 선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시대가 흐를수록 증가해 가고 있다. 케인은 기독교 선교에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소들로서 민족주의의 고조와 확대, 정치적인 불안정과 민주주의의 붕괴, 사회적인 불안과 변화의 요구, 비기독교 종교의 재기, 그리고 아랍 제국의 경제 및 정치적인 충격들을 포함시켰다.²⁶⁾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세계의 도처에서 기독교 선교에 장애와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슬람교도 전체가 계속하여 기독교에 대항할 소지를 파악하면서 서구의 정치가들과 영적 지도자들 중에 순진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슬람의 적대적인 행위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지적에

24) Harold Lindsell,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Westwood: Fleming H. Revell Company, 1954), 127.

25) Ibid, 254.

26) J. Herbert Kane,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178-180.

27) Peter Beyerhaus, op.cit., 232.

의하면 기독교선교에는 이슬람이 계속하여 장애와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교사역에는 본질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따를 수 있기에 누스바움(Stan Nussbaum)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안전이란 고통과 위험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선교사역에는 고통과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이 직결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선교사들이 성경적인 조명 아래서 솔직하게 알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²⁸⁾ 그는 또한 안전성이란 하나의 문제점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는 둘째의 위치에 속한다고 하면서, 쉐드(J. S. Shedd)의 의미 있는 말을 인용했다. 그의 말은 “배는 항구에서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²⁹⁾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 때문에 사역자체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을 기독교 선교의 한 부분”으로 본 것과 “역사는 우리에게 선교사역에 항상 고통이 수반되어 온 것을 보여” 주는 것³⁰⁾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리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2. 선교사들이 흘린 순교의 피로 얼룩진 선교역사

기독교선교 역사는 선교사역자들에게 많은 장애와 위험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내

28) Stan Nussbaum, "The missionary's safety in the face of pain, danger and death",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Vol.14, No.2, April 1978), 77.

29) Ibid, 78.

30) Jonathan McRostic, "Suffering and Mission", David Greenlee, (ed.), *Global Passion*, (Secunderabad: OM Books, 2003), 61.

용들을 담고 있다. 이미 빛이 바랜 오래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써내려가는 페이지를 붉게 물들이고 한다.

케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한 삶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도록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한다. 주를 위하여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마 10:17-18),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할 것(마 10:21-22),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도록 가르친 것(마 10:28),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가르친 것(마 10:39). 그는 또한 기독교 선교는 초기부터 스테반을 이어 야고보가,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에게 참수 당했다고 하면서, 만일 전승이 믿을만한 내용이라면 열두 사들들 중에 사도요한만 자연사하였고 다른 사도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말한다.³¹⁾ 기독교 선교역사의 처음 사역자들이 이처럼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은 선교사역에 순교의 피가 밭거름이 되는 것을 보일뿐 만 아니라 계속하여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는 과정에는 희생이 뒤따를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기독교 선교 역사는 시대마다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는 지역에서의 희생을 수록하고 있어 그것에 대한 사례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AD 100-500년은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가 복음화 된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31)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288-289.

공인하기 전의 상황은 혹독한 박해와 순교의 시기였다. 이시기에도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처형 하는 자들을 감동시키는 모습들을 보였다.

핍박이 일단 시작되자 순교적인 처형을 공지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로마의 국민들은 엄격하고 잔인했지만 전혀 동정심도 없는 백성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순교자들의 태도 특히 남자들과 함께 고통당해야 했던 여자 순교자들의 태도가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고요하고 품위를 갖춘, 예절 바른 행동들, 고문을 앞에 두고도 냉정을 잃지 않는 용기, 원수들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고난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로 알고 기쁘게 감수하는 태도들이다. 정죄 당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의 사례는 완전히 확인된 것만도 상당수에 이르며 이 때 받은 인상 때문에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례는 훨씬 더 많다.³²⁾

AD 500-1200년은 유럽전역이 복음화 된 기간으로 이 기간에 복음은 북구의 스칸디나비아 삼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선교사의 한 실례를 소개한다. 독일에 기독교를 전해준 사람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수도사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보니페이스(Boniface, 680-755)이다. 그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노년에 독일을 떠나 화란으로 왔을 때 아직도 그곳의 프리시안 사람들은 불신자들 뿐 이었다. 그가 그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어 사역이

32)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ew York: Penguin Books, 1986), 38-39.

성공되어 갔을 때 불신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후에는 폭도로 변하여 755년 8월 5일에 보니페이스와 50명의 동료들이 살해되었다.³³⁾ 이것은 빙산의 한 일각에 해당할 뿐이다.

AD 1300-1700년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역을 펼친 기간이다. 이 기간에 로마가톨릭은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차이나, 인도,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활발하게 사역을 펼쳤다. 비록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흐름 속에 포함시켜서 고찰해 볼 때 로마가톨릭의 포교에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1581년에 200개 교회와 150,000명의 로마가톨릭 교인이 생겨났으나, 1600년과 1614년에 반기독교령이 선포되어 모든 해외선교사들은 축출되었으며, 박해는 계속되어 1638년에는 37,000명의 교인들이 시마바라라고 하는 오래된 성안에서 최후까지 버티었지만 결국 포위되어 대학살의 희생물이 되었다.³⁴⁾ 아프리카에서도 건강을 해치는 이상 기온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로마가톨릭 선교사들의 사망률이 가공할 만큼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³⁵⁾ 아프리카는 아직도 말라리아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래전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었을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AD 1600년 이후부터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은 이어져 왔다. 모라비안 선교회(Moravian Missions)가 시작되어 선교사를 계속하여 여러 지역에 보내던 중 1734년에 버진 열도(the Virgin Islands)의 성 크로와(St.

33) J. Herbert Kane,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41-42.

34) Ibid, 61-62.

35) Ibid, 71.

Croix)섬에 10명을 보냈을 때 5년 만에 모두 죽었다.³⁶⁾ 19세기에 이르러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에 의하여 우간다에 파송 받은 알렉산드 맥케이(Alexander Mackay)와 다른 7명은 파송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1명이 죽었고, 1년이 지나면서 5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2년이 지났을 때 맥케이만 남았으나 그도 12년간 분투하다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역시 교회선교회는 첫 20년 동안에 시에라 리온(Sierra Leone)에서 53명의 선교사를 잃었다. 중국에서는 1900년에 발생한 의화단 사건(Boxer Rebellion)으로 적어도 189명의 선교사와 그들 자녀가 생명을 잃었다.³⁷⁾ 이처럼 순교란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선교 역사는 피 흘린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복음전파의 열매를 맺어왔다. 2세기의 변증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Tertullian)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탄생의 씨앗이 된다”³⁸⁾ 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J. Smith) 역시 “순교자들의 피는 머지않아 교회의 씨앗이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추수가 계속하여 있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³⁹⁾ 고 강조했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선교에 따르는 위협과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교사역에는 장애와 위협의 요소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선교사역이란 위협의 요소가 없는 곳

36) Ibid, 79.

37) Ibid, 97-98.

38)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3), 26.

39) Oswald J. Smith, *The Challenge of Missions*, 김동완 역, 「선교사가 되려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75.

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소가 없는 곳만을 선택해서도 안 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IV. 한국교회가 해외의 위험지역에서 선교에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망대 비유가 나온다(14:28-30). 주님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쌓고 중단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리고 일만의 병사로서 이만의 대적을 물리칠 방도가 없을 때는 화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말씀도 하셨다(14:33-33).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무계획적인 즉흥적인 것 보다는 전략적인 면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의 사역에도 역시 전략적인 면이 있었다. 롤랜드 알렌(Roland Allen)은 바울의 전략을 도시 보다는 지방들을 빈번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되, 로마 제국에 국한된 지역들이었고, 그의 전도 원칙은 혼자서 모든 지역을 전도하기보다는 주요 중심지를 두고 그곳에서부터 퍼져 나가도록 했으며, 그가 중심지로 활용한 도시나 마을은 주로 로마제국의 행정구역, 헬라문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리고 유대인이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상권의 중심지였다고 밝힌다.⁴⁰⁾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전략을 토대로 사역하였다.

40)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2), 18-25.

기독교 선교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선교사역에는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과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장애 가운데도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관계를 고찰해도 전략이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위험과 장애 앞에서 선교를 회피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로 눈에 띄게 단체로 활동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험과 장애의 요소가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는 것이다.

1. 시위적인 활동의 자제

근래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다소 시위적인 요소와 외형적인 과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교단체들 중에 여러 단체들은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운동과 10/40창 이론을 적용시켜 이슬람에 배타적인 공격성을 고취시키는 선교비전을 토대로 시위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⁴¹⁾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은 선교적인 열심에서 돋보이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예루살렘 예수행진2004와 관련된 활동들을 볼 수 있다. 1997년과 1998년에 이미 역실크로드운동을 펼쳤는데 10/40창 전체에 흩어진 미전도 종족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 신들을 묶기 위하여 실크로드를 역으로 4개월간 행진하였다. 그리고 이 행진은 다시 2000년 7월에 전 세계교회 성도들과 10/40창에 속하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수만 명이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41) 송강호, "분쟁지역에서의 선교, 중단하지 말자", newsnjoy.co.kr, 2007년 7월30일.

알마타에 모임을 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거대한 행진을 하였다. 다시 2004년에 1,000개의 교회들과 여러 선교단체들, 전 세계와 한국의 성도들이 일어나며, 3,000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2004년 8월에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가지는 계획을 세우고 동참을 호소했다.⁴²⁾ 결국 이 모임은 "2,800여명의 주의 제자들이 중동행 비행기를 탔으며, 그 중 2,500여 명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접전지에 진입하였다."⁴³⁾ 인터콥선교회에서도 9.11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반대운동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쳤으며, 전쟁이 끝나자 말자 즉시 500-600명의 단기선교팀을 보냈다.⁴⁴⁾ 또한 미군의 이라크 전면 공습이 끝난 2003년 4월부터 지역교회들과 연합하여 300여 명의 단기선교팀을 이라크 지역으로 보냈다.⁴⁵⁾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규모의 활동이란 대단한 선교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별히 인터콥선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전문인선교 사역은 오늘의 피선교지의 정세에 어울리는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대규모의 단기선교팀을 통하여 선교의 열기를 고취시키면서 미래를 위한 장기 사역자들을 준비해 나가는 일들은 높이 평가해야 할 요소이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운동에 발견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선교적 접근에 과격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최마울 선교사는 캠퍼스 전

42) 최마울, 「시대」, (서울: 서로사랑, 2005), 166-168.

43) Ibid, 180.

44) 최마울, 「Back to Jerusalem」, (서울: 퍼네기, 2005), 33.

45) Ibid, 79.

위부대로서 젊은이들의 선교를 동력화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래디컬 미션(Radical Mission)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⁴⁶⁾ 다른 하나는 시위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 예루살렘예수행진2004역시 참가자 모두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10Km를 행진하는 내용에 선교적 의미를 두었기에 주제 자체까지 그렇게 표현했다.⁴⁷⁾ 또 다른 한 면은 정탐에 의미를 두는 현장의 땅 밟기에 강조를 두는 표현으로서, “여호수아프로젝트2000이후 현장을 밟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많은 단기선교팀들이 일어난 것”을 강조하였다.⁴⁸⁾ 이러한 표현들은 모임의 성격이나 규모, 그리고 의도에 있어서 시위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위적인 요소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비평을 피할 수 없다. 주재일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열린 평화행진은 이웃 종교인들을 자극할 여지가 많았다. 이를 우려한 정부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만류했고,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평화행진의 선교방식을 비평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⁴⁹⁾ 송강호에 의하면, 한나절의 평화행진 혹은 하룻밤의 축제, 그리고 땅 밟기와 같은 유형의 사역을 무책임하고도, 몰상식적이며 몰역사적인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⁵⁰⁾ 지나친 표현의 비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46) Ibid, 54.

47) Ibid, 61.

48) Ibid, 77.

49) 주재일, “선교라도 다 같은 건 아니다”, newsnjoy.co.kr, 2007년 7월27일.

50) 송강호, op.cit.

과연 위험 지역에서조차도 시위성이나 외형적 과시의 사역을 해야 하는가? 물론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에 어울리는 전략적인 면을 고찰해볼 필요가 없는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위험과 장애가 있는 지역의 사역은 더욱 신중한 준비와 체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지 긴박하다는 입장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는 시위성의 선교는 지양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태웅은 현대선교의 장벽들을 열거하면서 대부분의 선교 대상국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교사의 안전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교회도 선교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⁵¹⁾ 그는 또한 한국교회나 선교사가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긴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선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비단 선교사의 질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 참여도라든지 또 선교단체가 행정 체제도를 갖추지 않은 채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의 선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⁵²⁾ 고 설명하였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직후에 선교학자들을 포함한 7명⁵³⁾의 교계 중진 목회자들이 한국선교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7가지 조항들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다섯 번째 항목은 “복음 전파의 사역은 물론 사랑의 봉사 사역을 위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지역에서

51)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71.

52) Ibid, 21.

53) 김명혁, 강승삼, 박종화, 손인용, 이정익, 이종복, 전호진 이상 7명.

는 대형집회나 행진을 삼가야 할 것이다”⁵⁴⁾ 라는 내용이다. 기독교 선교가 시위성을 통하여 표현되지 않아야 할 것과 신중한 준비와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장애와 위협의 요소가 도사린 지역에서 더욱 필요한 전략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2. 현장의 문화와 정서의 이해

선교사역에 있어서 현장의 문화이해는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날의 선교에는 현장의 문화이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전하는 편에서의 열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적인 이해 없이 열심히 전한 결과 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문화적인 이해 없이는 바른 접근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물론 선교란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이해 때문에 문화이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이해의 중요성을 떠올려보면 분쟁으로 선교에 장애와 위협이 고조되는 곳일수록 문화적인 고찰을 토대로 하는 접근의 필요가 요청된다. 선교에 장애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더 환경적이면서도 정서적인 토대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중동의 모슬렘지역은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이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정착해온 환경과 정서적인 요소가 지배하는 지역이다.⁵⁵⁾ 따라서 시위적인 유형

54) 이승규, “교계 중진 목사들, ‘한국교회 선교 방향 전환해야’”, newsnjoy.co.kr, 2007년 7월27일.

55) Bernard Palmer, *Understanding the Islamic Explosion*, (Horizon House Pub.: Camp Hill, 1980).

이나 대립 형태의 사역보다는 그들의 종교나 문화이해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요한은 이슬람이 가진 정서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성과 합리에 기초하고 있는 서구적인 조직신학의 논리로 무장한 기독교 변증학을 동원하여 무슬림들을 설득한다고 한들, 그들의 감정적인 수궁을 받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와 현실은 이성과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감성과 관계를 의치고 있다. 무슬림 상황 가운데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들의 역사와 상황이 이해되고, 우리가 그들과 감정의 교류를 통하여 그것을 공유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⁵⁶⁾

7인의 교계 중진 목사들의 발표문 두 번째 항목에도 언급된 것으로, “복음전파이든 사랑의 봉사든 선교사역을 수행할 때 현지인들의 정서를 깊이 고려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현지인들의 마음에 상처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⁵⁷⁾ 라는 내용은 공감할만하다.

무슬림 지역의 적대적인 감정이 형성된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집단적인 접근의 행동은 자칫 지난 역사에 대한 상처를 다시 건드려 더욱 대결하는 구도로 뒹굴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이태웅은 초기선교사들의 경우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

56) 김요한, “한국적-세계 무슬림 전방개척사역”, 강승삼 편집,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전방개척선」, 서울: 한선협, 2005.

57) 이승규, op.cit.

고 나감으로 현지의 문화적인 상황을 존중하지 않고 선교사역에 임하여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모슬렘권 선교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더욱 현저할 것을 이미 지적하기도 했다.⁵⁸⁾ 전재욱 역시 “이슬람 선교는 신중하게 연구하는 과정 없이 막연하게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무지와 자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뜻을 박기도 했다.⁵⁹⁾ 따라서 위험과 장애의 요소가 있는 지역일수록 시위적인 형태의 사역보다는 문화이해와 정서파악을 토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협력체계의 사역

근래에 이르러 한국교회 해외선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동시에 개선 사항으로 부각되는 요소는 선교사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문제이다. “한 서구의 선교지도자는 한국교회는 가장 선교하는 교회이지만 연합에서는 가장 뒤 떨어지는 교회라고 지적하는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말이다.”⁶⁰⁾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한국교회는 1991년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한 “2000년대를 향한 민족과 세계복음화회의”의 마지막 날에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선언문의 제5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 동안 나타난 경쟁심, 무관심, 정치성, 배타성, 독선 등을 지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임을

58) 이태웅, *op.cit.*, 26.

59) 전재욱, “이슬람권 선교 방법”,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3), 243.

60) 전호진,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성광문화사, 1993), 210.

인식하며 교파 간, 교회와 선교회 간, 선교기관과 선교지 교회 간, 국내외 한인교회 간 및 동서교회 간에 최선의 협력을 기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⁶¹⁾

이러한 내용은 결국 한국교회가 선교사역에서의 협력을 이루어 내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슬림 지역에서 독단적인 집단 활동은 다른 선교단체들과의 협력활동의 부재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집단 활동으로 그곳에 어렵게 시작한 현지 교회가 있다면 그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미 그곳 현지에서 조용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 같은 협력부재의 모습 때문이 이번 아프간 피랍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외신들조차도 한국교회가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7월25일자로 “인질사건이 한국의 봉사활동을 흔들고 있다”는 주제로 한국교회가 선교와 구호활동에 있어서 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앞 다투어 선교사를 중국, 중부유럽, 남아시아 등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 것을 지적했다.⁶²⁾ 따라서 선교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는 선언문의 셋째 항목은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61)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2000년대를 향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서울 선언문”,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3), 17.

62) “전문적 훈련 프로그램 없이 물질 내세운 경쟁적 선교 풍토 개선 시급”, 기독교신문, 2007년 8월5일, 제9면.

라 생각한다.

셋째, 복음전파든 사랑의 봉사든 선교사역을 수행할 때는 현지인들과 현지교회들과 현지선교사들과 긴밀한 유대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지인들을 격려하고 내 세우는 토착화 사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현지 상황에 적응하면서 현지 지도력을 개발하고 강화했다. 정치 지도력 까지도 존중했다. 이와 같은 현지 지도력 존중과 협력 개발은 기독교 선교역사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봉사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현지인들과 긴밀한 유대 및 협력관계는 캄보디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그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⁶³⁾

4.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사들의 겸손한 섬김의 사역

기독교 선교를 금하는 적대지역일 수록 대규모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행진하거나 땅 밟기와 같은 활동은 시위로 보일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이 시위로 보일 때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적대지역에서 교만으로 보이는 활동은 결국 더욱 완강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사실 터키 민족과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이슬람교도들에게 십자군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의 결과는 기독교 선교의 어떠한 시도도 십자군 정신의 부활로 여겨 대응하는 정신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⁴⁾ 따라서 선교사의 겸손한 섬김의 사역은 반대자의 마음을 여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63) 이승규, op.cit.

64) Peter Beyerhaus, op.cit., 217.

타문화권에 간 선교사가 더 이상 고자세를 가지고 군림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교회 위에 군림하는 시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사는 어디를 가든지 현지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종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선교사의 영적성숙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⁶⁵⁾ 선교사의 영적인 성숙이 담긴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역이야말로 모든 선교현장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지역에서 더욱 필요한 성육신적 사역의 일환이다.

케인은 선교사가 구비해야 하는 심리적인 자격을 열거하면서 우월감을 없애는 것과 종족 간에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포함시켰다. 우월한 태도는 선교사가 일생 동안에 조심해서 피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하면서, 그러한 자세는 19세기에도 충분히 나뉘었지만, 지금 외서는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종족간의 편견의 문제가 문제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가 구령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를 격리시키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했다.⁶⁶⁾ 이러한 지적에 의하면 선교사의 영적이며 심리적인 자격으로서 겸손한 섬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확인 할 수 있다.

지난날 서구 선교사들 가운데는 겸손한 섬김의 모습보다는 우월감으로 피선교지의 사람들을 만나왔던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는 비록 선교사들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끝내는 “양키, 고 홈(Yankee, go home)

65) 이태웅, op.cit., 75.

66) J.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50-52.

이라는 선교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적대적인 지역일수록 더욱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V. 맺으면서

한민족복지재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선교를 위축시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주장은 가능한 한국교회가 장애와 위협이 따르는 선교현장을 피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기독교선교는 본질적으로 장애와 위협에 직면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선교의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에 수반될 고난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선교사역은 또한 영적전투에 속하는 삶이기에 장애와 어려움은 상존하는 삶이다. 선교사역이란 타종교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결의식과 구도를 가질 것이며, 거기에는 장애와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 선교사역자가 언어, 기후, 음식, 그리고 습관이 다른 타문화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 역시 장애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선교사역이란 본질적으로 장애와 위협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 선교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일이다. 시대를 달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에 따르는 장애와 어려움을 웅변하고 있다.

이처럼 선교사역에는 본질적인 장애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그러

한 장애들 때문에 선교사역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선교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제안한 발표문의 마지막 일곱째항,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복음 사역을 안전위주로만 치닫는 것도 문제이다. 기독교는 사랑과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고와 불편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회피하는 종교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⁶⁷⁾ 라는 제안에 깊은 공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위협의 현장에서 전략적인 대처 없이 사역을 펼침으로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이미 조심성 있게 사역하는 사역들마저 어렵게 하며, 나아가서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사역 자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방안으로서 시위적인 활동을 자제하며, 현장의 문화와 정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역, 협력체계의 사역,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사들의 겸손한 섬김의 사역 등을 제안한다. 특별히 위협이 경고된 지역에 나가는 단기선교팀들은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반대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타켓이 되지 말아야 하며, 현재 그러한 지역에서 조용히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를 노출시키지 않는 주의가 필요함을 덧붙인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글을 인용하면서 압축한다.

선교사들은 성령 충만한 실용주의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현실에도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역을 할 때 죽음을

67) 이승규, op.cit.

자초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반면에, 잠재적인 위험을 너무 강조하여 새로운 사역이 개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에 너무 큰 가치를 두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⁶⁸⁾

마무리 하면서 필자가 이 논문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피랍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어서 속히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원한다. 아울러 이미 생명을 잃은 형제들의 가족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통한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샘물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지속적인 위로와 인도하심을 기원한다.

68) 한국해외선교회 편, 「선교사의 위기관리」, (서울: 한국해외선교부 출판부, 1997), 16.

참고도서

-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2.
- Beyerhaus, Peter, *Mission and Apologetics*, 이선민 역, 「현대선교와 변증」, 서울: CLC, 2004.
- Dennett, Jo Anne, *Thriving in Another Culture*, 정운하 역, 「타문화에 뿌리 내리기, 고양사: 올리브나무 프로덕션」, 2004.
- Jessup, Henry H., "Who ought not to go as foreign missionaries", *The Call, Qualifications and Preparation of Candidates for Foreign Missionary Service*,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906.
- Johnston, Arthur P., "Appendix II The Lausanne Covenant", *The Battle for Evangelism*,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78.
- Kane, J. Herbert,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Kane, J. Her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 Kane, J. Herbert,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 활과 사역」, 서울: 도서출판두란노, 1993.
- Lankester, Herbert, "Life and work in the tropics and how to prepare for it", *The Call, Qualifications and Preparation of Candidates for Foreign Missionary Service*,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906.
- Lindsell, Harold,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Westwood: Fleming H. Revell Company, 1954.
- McRostie, Jonathan, "Suffering and Mission", David Greenlee, (ed.), *Global Passion*, Secunderabad: OM Books, 2003.
- Neil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Nussbaum, Stan, "The missionary's safety in the face of pain, danger and death",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Vol.14, No.2, April, 1978.
- Padilla, C. Rene, *Mission Integral*, 홍인식 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 Palmer, Bernard, *Understanding the Islamic Explosion*, Horizon House Pub.: Camp Hill, 1980.
- Schoonhoven, E. Jansen, *Variaties op het Thema 'Zending'*, Kampen: Kok, 1974.
- Smith, Oswald J. *The Challenge of Missions*, 김동완 역, 「선교사가 되려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Soitau, T. Stanley, *Facing the Fie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 Tucker, Ruth A.,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3.
- 김요한, "한국적-세계 무슬림 전방개척사역", 강승삼 편집,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선협, 2005.
-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 전재욱, "이슬람권 선교 방법",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시출판 햇불, 1993.
- 전호진,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최바울, 「시대」, 서울: 서로사랑, 2005.
- 최바울, 「Back to Jerusalem」, 서울: 퍼내기, 2005.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 "2000년대를 향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회의 서울 선언문", 「한국교회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도시출판 햇불, 1993.
- 한국해외선교회 편, 「선교사의 위기관리」, 서울: 한국해외선교부 출판부, 1997.
- "아프카니스탄 인질사태, 개신교 선교방식 바꿔놓을까", *조선일보* 2007년 8월 2일, A25면.
- "전문적 훈련 프로그램 없이 물질 내세운 경쟁적 선교 풍토 개선 시급", *기독교신문*, 2007년 8월 5일, 제9면.
- "한국교회 해외선교 위축 우려", *한국기독교신문*, 2007년 8월 4일, 제1면.

- "비방성 댓글, 가족들 두 번 운다", *kscoramdeo.com*, 2007년 7월 26일.
- 김만중, "한국교회, 오만 버리고 회개해야", *newsnjoy.co.kr*, 2007년 7월 27일.
- 송강호, "분쟁지역에서의 선교, 중단하지 말자", *newsnjoy.co.kr*, 2007년 7월 30일.
- 이승규, "교계 중진목사들, 한국교회 선교 방향 전환해야", *newsnjoy.co.kr*, 2007년 7월 27일.
- 정강길, "한국교회, 누가 누구에게 선교하는가", *newsnjoy.co.kr*, 2007년 7월 30일.
- 정주진,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그들도 원할까?", *newsnjoy.co.kr*, 2007년 7월 24일.
- 주재일, "선교라도 다같은 건 아니다", *newsnjoy.co.kr*, 2007년 7월 27일.